

포스텍 한세광/노용영 교수, 과기한림원 정회원 선정

✎ 김하연 기자 | ⌚ 승인 2024.12.03 08:12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지난달 29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2025년도 정회원 36명 선출

[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포스텍(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융합대학원 한세광 교수, 화학공학과 노용영 교수가 2025년도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하 과기한림원) 공학부 정회원으로 선정됐다.



왼쪽부터 한세광교수 노용영교수

과기한림원은 20년 이상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오고 있는 연구자들을 매년 정회원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선정과정에서 연구자가 책임저자로 발표한 논문 10편에 대한 독창성과 학문적 영향력, 기여도를 자세히 평가한다.

한세광 교수는 생체고분자 및 나노소재를 활용해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스마트 콘택트렌즈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개발해 헬스케어 분야 발전을 이끌고 있다. 그뿐 아니라, 약물 전달 및 재생 의료 융합 연구를 통해 암과 당뇨, 관절염 등 난치성 질환의 진단과 치료 시스템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 노용영 교수는 고성능 N형 및 P형 반도체 소재 연구를 통해 반도체 소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주석(Sn) 기반의 금속 할로겐화물 페로브스카이트 P형 반도체와 고성능 트랜지스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노 교수의 연구는 2023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전자정보 분야 최우수성과로 선정됐으며, 과학기술훈장 도약장을 수훈했다.

한편, 과기한림원은 지난 29일 정기총회에서 포스텍 한세광 교수와 노용영 교수를 포함해 내년도 정회원 36명을 선출했다.



김하연 기자 hy@veritas-a.com
